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체포 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끔찍한 죽임을 당하신 것, 제자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지요.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시기 얼마전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자없는 양과 같이 그들의 신세가 그저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을 듣고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나섰습니다. 이는 기분전환이나 취미생활로 낚시하러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낙향해서 어부로서의 생활 즉,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했을 수 있죠.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심정이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곁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던 그의 고백과는 달리, 베드로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원래 어부였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정말 한~마리도 안잡히는 거예요. 명색이 어부인데 말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는데, 고기잡는 것조차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분명 낙심 그 자체였을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일이 이렇게 꼬이나보다. ㄸㄸ”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더욱 심난했겠죠.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새벽 미명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한마리도 건지지 못한 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원가를 해보고자 했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신기하리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는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셔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 주님께서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마침 배가 육지 가까이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성미가 급한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밤새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 잡는 일을 했으니 겉옷도 걸치지 않았겠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겉옷을 여미고, 즉, 주님께 예의를 갖추구요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리지...? 죄송하다고 해야하나? 용서해달라고 빌어볼까?'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실패해도 우리의 상실과 아픔을 만회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 삶에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형통케됨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다보면 맘이 참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생각은 많아지고... 하는 순간들 말이죠. 하나님께 넉두리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봅니다. 방황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성경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금 내 영혼을 소생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요.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물고기도 좀 가지고 오라하셔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렸는데 큰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설명을 가만히 보세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깁니까?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즉 그렇게 큰 물고기 153마리 정도라면 그물이 찢어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떡과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잡느라 시장했겠지만, 주님 앞에 면목도 없고, 목이 메여서 그 떡과 물고기를 잘 넘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적막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또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추궁하시거나 꾸짖거나 비꼬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의 모습 그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맘에서, 그 모습이 절망한 상태일지라도, 그 마음 상태, 그 눈 높이에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다

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른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회복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남들과 보조를 맞추어 남들이 이정도 하면 어쩔 수 없이, 안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남들 눈치와 체면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던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비록 3번씩이나 물으셔서 맘이 부딪히고 어려웠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솔직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과거의 일들을 묻지도 않으세요. 대신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많이들 넘어지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생활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마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의 양을 맡을 만한 인물이 못되요.”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맘으로! 제가 부족해도 말씀으로 꼴을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당신의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위로 받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되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